

공 고

●문화재청공고 제2021-25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7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7. 1.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총 7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수운잡방 (需雲雜方)	1책(23장)	김** (한국국학진흥원)
2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 (禮念彌陀道場懺法 卷一~五)	5권 1책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사
3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서울 寧國寺址 出土 儀式供養具 一括)	10건 10점	국 유 (한성백제박물관)
4	국새 대군주보 (國璽 大君主寶)	1과	국 유 (국립고궁박물관)
5	국새 제고지보 (國璽 制誥之寶)	1과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6	국새 칙명지보 (國璽 勅命之寶)	1과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7	국새 대원수보 (國璽 大元帥寶)	1과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수운잡방(需雲雜方)

- 현재 지정사항: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35호(2012.5.14.지정)
- 명 칭: 수운잡방(需雲雜方)
- 소유자(관리자): 김**(한국국학진흥원)
-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중들 2길 9, 한국국학진흥원
- 수 량: 1책(23장)
- 규 격: 25.7×19.3cm
- 재 질: 목조 및 소조
- 판 종: 필사본
- 조성연대: 16~17세기
- 제작자: 김유(金綏, 1491~1555), 김영(金垚, 1577~1641)
- 사 유

‘수운잡방’은 경북 안동의 유학자 김유(金綏, 1491~1555)와 그의 손자 김영(金垚, 1577~1641)이 저술한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 제목의 ‘수운(需雲)’은 『주역(周易)』의 “구름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수(需, 需卦)’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雲上于天, 需, 君子以飲食宴樂).”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베풀어 즐긴다는 의미이다. 곧 ‘수운잡방’은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이다.

이 책은 김유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김영이 지은 뒷부분에 36항이 수록되어 모두 12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4종의 음식 조리 및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항목을 분류하면 주류(酒類) 57종, 식초류 6종, 채소 절임 및 침채(沈菜, 일종의 김치류) 14종, 장류(醬類) 9종, 조과(造菓) 및 당류(糖類) 5종, 찬물류 6종, 탕류 6종, 두부 1종, 타락(駝酪, 우유) 1종, 면류 2종, 채소와 과일의 파종 및 저장법 7종이다. 중국이나 조선의 다른 요리서를 참조한 사례도 있지만, ‘오천양법(烏川釀法, 안동 오천지방의 술 빚는 법)’ 등 조선시대 안동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수운잡방’의 역사적 가치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모시는 봉제사 접빈객(奉祭祀 接賓客)의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자료로서, 할아버지 대부터 손자 대에 이르는 3대가 집필하고 보존 관리해온 음식조리서라는 점이다. 아울러 저자가 직접 쓴 원고본이고 후대의 전사본도 알려지지 않은 유일본으로서 서지적 가치도 크다.

학술적 가치는 안동 예안지방의 광산김씨 문종과 주변 지역에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음식 조리법을 정리한 책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기원과 역사, 조선 초·중기 음식 관련 용어 등을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복원과 문화의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수운잡방’은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는 조선 전기 요리서가 극히 드물어 희소성이 있다는 점, 당대 조선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담고 있는 고유의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점,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인의 음식문화 기원을 찾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禮念彌陀道場懺法 卷一~五)

- 지정사항 : 비지정
- 명 칭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禮念彌陀道場懺法 卷一~五)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28-77, 고불사
- 수 량 : 5권 1책
- 규 격 : 30.8×22.2cm(반곽 23.9×18.4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74년(성종 5) 경
- 사 유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는 1474년(성종 5년)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의 발원으로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개관된 왕실판본(王室版本)으로, 10권 2책의 완질 중 권1~5의 1책에 해당하는 불경이다.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은 아미타불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든 죄업을 참회하며 보리심(菩提心)을 내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집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가장 오랜 판본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고려의 승려 혜랑(慧朗) 등이 간행한 책이 전하며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판단된다. 이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본(母本)이 되는 자료로서 조선 초기의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고불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의 역사적 가치는 「시주질(施主秩)」을 통해 왕실의 인수대비·인혜대비를 비롯해 공주·숙의(淑儀)·상궁(尙宮) 등 여인들과 월산대군(月山大君)·제안대군(齊安大君) 등 종친들, 신미(信眉)·학열(學悅)·학조(學祖) 등 당대 중요 고승들이 참여한 정황이 명확하고, 「간행질(刊行秩)」을 통해서도 판각과 인쇄에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어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적인 불경 간행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책 앞머리에 수록된 과거·현재·미래 삼세불(三世佛)의 도상은 화원(畫員) 백종린(白終麟)과 이장손(李長孫)이 그린 작품으로, 연대와 작가가 확실한 조선 초기의 판화라는 점에서 당시 불교사·인쇄사·판화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서울 寧國寺址 出土 儀式供養具 一括)

- 지정사항 : 비지정
- 명 칭 :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서울 寧國寺址 出土 儀式供養具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국유(한성백제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 수 량 : 10건 10점
(금동금강저 1건 1점, 금동금강령 1건 1점, 청동현향로 1건 1점, 청동향합 1건 1점, 청동숟가락 3건 3점, 청동굽다리그릇 1건 1점, 청동유개호 1건 1점, 청동동이 1건 1점)
- 규 격 : 아래 표 참조

대 상	크 기
금강저	전체 길이 17.5cm, 손잡이 길이 7.17cm, 양쪽 고부 길이 각 4.86cm, 4.97cm, 양쪽 고부 너비 각 4.86cm, 4.64cm)
금강령	(금강령) 전체 높이 19.5cm, 령부 높이 8.16cm, 령부 직경 5.36cm, 손잡이 높이 6.24cm, 고부 높이 4.92cm (탁설) 길이 7.0cm, 너비 2.6cm, 연결 고리 직경 1.90cm
현향로	몸체 높이 13.1cm, 뚜껑 높이 4.9cm, 손잡이 높이 14.0cm
향합	높이 14.7cm, 뚜껑 직경 17.8cm
향시(숟가락)	(서위H12433) 길이 25.9cm, 술길이 8.0cm, 술너비 3.96cm (서위H12437) 길이 26.0cm, 술길이 8.0cm, 술너비 4.0cm (서위H12441) 길이 26.0cm, 술길이 8.5cm, 술너비 4.3cm
청동굽다리 그릇 (대부완)	높이 7.53cm, 구연부 직경 11.6cm, 굽 높이 2.1cm, 굽 직경 6.0cm
청동유개호	높이 44.3cm, 구연부 직경 17.5cm, 굽 직경 21.5cm
청동동이	높이 27.0cm, 구연부 너비 38.5cm, 굽 너비 25.7cm

- 재 질 : 금동, 청동, 철
- 조성연대 : 고려 시대
- 사 유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은 조선시대 유학자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기리기 위해 세운 도봉서원(道峯書院)의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기단 아래에서 2012년 수습된 것으로, 금동금강저 1건 1점, 금동금강령 1건 1점, 청동현향로 1건 1점, 청동향합 1건 1점, 청동숟가락 3건 3점, 청동굽다리그릇 1건 1점, 청동유개호 1건 1점, 청동동이 1건 1점 등 총 10건 10점이다.

이후 2017년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고려 초기 고승 혜거국사(慧炬國師) 홍소(弘昭, 899~974)의 비석(碑石) 파편이 발견되었고, 비문의 내용 중 ‘견주도봉산영국사’(見州道峯山寧國寺)라는 명문이 판독됨에 따라 이 지역이 ‘영국사(寧國寺)’의 터였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로써 도봉서원이 고려시대 영국사 터에 건립된 사실과 발굴지에서 수습된 금속공예품은 바로 영국사에서 사용한 고려시대 불교의식용 공예품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발굴된 금속공예품은 총 67건 79점이었으나, 이 중 조형성, 공예적 기법이 우수하거나 크기가 크고 대표적인 유물(금강저, 금강령, 청동유개호), 유물이 담겨 명확한 출토정황

을 증명해주는 유물(청동동이), 명문이 있어 편년기준이 되는 유물(청동현향로, 청동향합, 대부완), 의식공양구 세트(숟가락 3건) 등 일정한 의의가 있는 유물 10건 10점을 지정예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10건의 ‘서울 영국사터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유물 중 현향로, 향합, 숟가락, 굽다리접시 등의 명문을 통해 유물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 중량, 제작시기, 시주자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릇의 굽다리에 새겨진 ‘계림공시(雞林公施, 계림공이 시주함)’라는 명문은 1077년~1095년 사이에 내려준 ‘계림공’의 작위명을 통해 고려 숙종(肅宗, 1054~1105)이 시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출토유물의 시대적 편년과 더불어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둘째, 본 유물들은 출토지가 확실하고 영국사에서 사용하였다가 일괄로 퇴장(退藏, 특별한 목적으로 매납함)된 유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물의 용도나 의례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셋째, 불교의식구인 금강저와 금강령은 완형의 세트로 발견되었는데, 주조기술이 정밀하고 세부 조형도 탁월해 지금까지 알려진 금강저와 금강령 중 가장 완성도 높은 금속공예품으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금강령의 탁설(鐸舌)이나 사리공(舍利孔)의 존재는 국내 유일한 사례이자, 금강령의 몸체 상단에 새긴 오대명왕(五大明王)과 하단의 범천(梵天), 제석천(帝釋天) 및 사천왕(四天王) 등 11존상의 배치 또한 그동안 보기 드문 희귀한 사례로서 우리나라 밀교(密敎) 범구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사터 출토 의식공양구는 고려시대의 수준 높은 금속 공예기법과 불교의례와 공양의식에 사용했던 다양한 금속기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불교공예사적, 불교의례사적 의의가 크다. 아울러 도봉산 영국사라는 출토지가 분명하고, 고려시대 왕실 관련 밀교 범구로서 원형을 갖고 있으며, 금강령에 조각된 11존상의 조형예술적 특성도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사유로 다량으로 출토된 금속유물 중 예술적, 공예사적으로 우수한 금강령과 금강저를 비롯하여, 명문을 통해 사용처와 용도, 시주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현향로, 청동향합, 청동굽다리 그릇, 숟가락과 이들을 담졌던 청동항아리와 청동동이는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정대상 목록>

연번	사진	유물명	수량	비고
1		금동금강저	1건 1점	
2		금동금강령	1건 1점	탁설 1점 분리
3		청동유개호	1건 1점	

4		청동동이	1건 1점	
5		청동현향로	1건 1점	‘道峯寺’명문 (손잡이, 뚜껑, 몸체 분리)
6		청동향합	1건 1점	‘道峯寺’명문
7		청동 굽다리그릇 (대부완)	1건 1점	‘雞林公施’명문
8		청동숟가락	1건 1점	
9		청동숟가락	1건 1점	
10		청동숟가락	1건 1점	
	계		10건 10점	

□ 국새 대군주보(國璽 大君主寶)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국새 대군주보(國璽 大君主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 1과
- 규 격 : 전체 높이: 7.9cm, 무게: 4.11kg
보신(寶身) 크기: 9.57×9.66×2.63cm, 보뉴(寶鈕) 크기: 12.73×7.28×5.33cm
- 재 질 : 은(수은 아말감 도금)
- 형 식 : 귀뉴(龜鈕)가 달린 정방형 인장
- 조성연대 : 1882년(고종 19) 7월 1일
- 사 유

‘국새 대군주보’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기(國旗)와 함께 제작하도록 명한 것으로, 무위영(武衛營, 고종대 궁궐 수비를 맡은 관청)에서 호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1882년 7월 1일 완성한 것이다. 당시 제작된 총 6과 중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견된 사례이다. 외교 및 고위 관원 위임장, 사령장 및 대군주의 명으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등에 날인한 국새로, 2020년 2월 미국에서 환수되어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국새 대군주보’는 형태와 재질, 규격이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것과 일치하고, 『고종태황제실록』의 기록을 통해 제작배경과 제작시기 및 제작처가 확인되므로,

기록으로도 증명되는 유물이다.

대군주보는 거북이 모양의 손잡이[龜鈕]에 거북이 몸체로 되어 있다. 거북이형 뉴식(鈕式)에 보면(寶面)에는 구첩전문(九疊篆)으로 대조선국의 대군주라는 의미를 지닌 ‘대군주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국새 대군주보’는 고종이 갑오경장기에 대외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표시하는 용도로 국가 간 비준이나 공식 문서에 자주독립국을 지향하는 ‘국새’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했던 보인이다. 이후 1897년 10월 11일 고종이 원구단에서 황제위에 올라 나라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국새도 ‘대한국새(大韓國璽)’로 바뀌었다. 이에 1899년 1월 고종 황제는 이때부터 ‘대한국새’를 사용하면서 ‘대군주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국새 대군주보’는 갑오개혁을 전후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방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유물이다. 서체, 뉴식, 재질, 주물방식 등 대한제국 이전의 고종 대 국새제작 방식이 담겨진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알려진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 국새 제고지보(國璽 制誥之寶)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국새 제고지보(國璽 制誥之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싑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 수 량 : 1과
- 규 격 : 전체 높이: 8.69cm, 무게: 5.85kg
보신(寶身) 크기: 11.13×11.13×2.16cm, 보뉴(寶鈕) 크기: 3.11~3.07×9.59×6.53cm
- 재 질 : 은(수은 아말감 도금)
- 형 식 : 용뉴(龍鈕)가 달린 정방형 인장
- 조성연대 : 1897년(광무 1) 9월 19일
- 사 유

‘국새 제고지보’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등극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또는 고위직을 임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만든 대한제국 국새 10과 중 하나로 1897년 9월 19일에 보장(寶匠) 전흥길(全興吉) 등이 제작하였다. 전흥길은 1851년부터 1897년까지 47년간 금보 제작에 있어 탁월한 솜씨를 발휘한 19세기 말의 대표적 보장(寶匠)이다.

‘제고(制誥)’는 ‘황제의 명령’을 뜻하기 때문에 이 국새는 조선왕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황제로 칭한 대한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새이다.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총무처에 인계한 국새로, 1954년 6월 28일 총무처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인계하여 지금까지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새 제고지보’의 제작과정은 『대례의궤(大禮儀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보새(寶璽)를 제작하기 위한 ‘책보조성소(冊寶造成所)’를 설치해 도제조 심순택(沈舜澤)의 책임 아래 전

문서사관(篆文書寫官, 篆書를 전문으로 쓴 관리) 홍문관학사 민병석(閔丙奭)이 글씨를 썼으며, 보장(寶匠)을 비롯한 다수의 장인들이 10일 동안 제작하였다. 또한 『보인부신총수』에 ‘국새 제고지보’의 형태와 재료, 치수 등의 도설이 수록되어 있어 이 유물이 대한제국 황제의 상징물로서 문서에 찍혀 실제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처럼 ‘국새 제고지보’는 제작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유물이 가진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국새 제고지보’의 형상을 보면, 손잡이는 용뉴(龍鈕)로서, 용 모양이다. 용의 정수리에는 점문이 있고 비늘이 있고, 머리에는 녹각뿔이 솟아있다. 코에는 여의두문이 있고, 입을 벌리고 이빨 2개가 아래로 돌출되었으며, 입 주위로 서기(瑞氣)가 보이며 여의주를 물고 있다. 몸 전체는 비늘이 덮였고, 등을 위로 솟구쳐 반원을 그리며 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여기에 다회로 끈 보수(寶綬, 매듭)를 꿰게 되어 있으나 현재 보수는 없어진 상태이다.

동 유물은 대한제국 국새로서 조선 왕실의 보인들과 형식적으로 비교된다는 점에서 시대적 변화를 보여준다. 조선왕실의 보인이 거북형 귀뉴(龜鈕)인데 비해 대한제국 국새로서 용뉴인 점, 용뉴의 받침대인 유대(鈕臺)를 마련하고 있는 점, 보면(寶面)의 사방 크기가 조선왕실 보인에 비해 사방 2cm 정도 커진 점, 보면의 글씨체가 조선 보인의 구첩전문(九疊篆)에서 대한제국 새보는 소전(小篆)으로 바뀐 점 등 여러 면에서 대한제국기 국새의 조형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국새 제고지보’는 대한제국기 황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며, 공예, 서예, 전각 분야에서도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적 역량이 담긴 문화재이다. 향후 미확인된 대한제국 국새의 발견을 위한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국새 칙명지보(國璽 勅命之寶)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국새 칙명지보(國璽 勅命之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과
- 규 격 : 전체 높이: 8.30cm, 무게: 2.74kg
보신(寶身) 크기: 9.08×9.12×2.10cm, 보뉴(寶鈕) 크기: 3.3×6.2cm
- 재 질 : 은(수은 아말감 도금)
- 형 식 : 용뉴(龍鈕)가 달린 정방형 인장
- 조성연대 : 1898년(광무 2) 윤3월 19일
- 사 유

‘국새 칙명지보’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등극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대한제국 국새 10과 중 하나로, 1898년 윤3월 19일에 제작되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의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

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1897년 9월 17일~19일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命之寶)’, ‘명헌태후지보(明憲太后之寶)’, ‘황후지보(皇后之寶)’, ‘황태자보(皇太子寶)’, ‘황태자비지보(皇太子妃之寶)’를 완성하였고, 이 중 3점은 옥보이고, 7점은 금보로 만들었다.

이번 지정 예고된 ‘국새 칙명지보’는 1897년 9월에 제작된 ‘칙명지보’가 아닌 이듬해 1898년 윤3월 19일에 만든 것이다. 1897년 제작 ‘칙명지보’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예고 대상 ‘칙명지보’는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총무처에 인계한 환수유물로서, 1954년 6월 28일 총무처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이 유물의 제작과정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등극하는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大禮儀軌)』에 자세하며, 대한제국의 국새 전반의 현황을 기록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를 통해서도 그 형태와 재질 및 실제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새 칙명지보’는 용모양의 손잡이[龍鈕]와 보신(寶身)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신은 사방 3치 3푼(9.08×9.12cm)로, 1897년 9월에 제작된 ‘칙명지보’(寶身: 4치 1푼)에 비해 비교적 작다. 손잡이의 모양은 용 형태로서 용뉴(龍鈕)이다. 용머리에는 녹각뿔이 솟아있고 정수리에는 점문이 있다. 코에는 여의두문이 있고, 입을 벌리고 이빨 2개가 아래로 빠져나와 있고, 입 주위로 서기(瑞氣)가 보이며 여의주를 물고 있다. 몸 전체는 비늘이 덮혀있고, 등을 위로 솟구쳐 반원형이다. 서체는 대한제국의 보새와 마찬가지로 소전(小篆)으로, 문자가 균일하고 좌우대칭의 정제된 형태로 나타나 제왕의 냉엄한 권위를 상징하는 듯하다.

‘국새 칙명지보’는 대한제국기 국새로서 모든 제작과정이 문헌을 통해 확인이 되고, 실제 사용례도 다양하게 파악되는 등 원형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아울러 당시 국새가 국가의 운명과 함께 수난을 겪은 역사적 상징물이자 희소하다는 측면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국새 대원수보(國璽 大元帥寶)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국새 대원수보(國璽 大元帥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과
- 규 격 : 전체 높이: 7.0cm, 무게: 1.61kg
보신(寶身) 크기 ①1단: 8.41×8.39×1.89cm, ②단: 6.90×6.96×0.40cm,
보뉴(寶鈕) 크기: 1.9×7.3cm
- 재 질 : 은(수은 아말감 도금)
- 형 식 : 용뉴(龍鈕)가 달린 정방형 인장
- 조성연대 : 1899년(광무 3) 6월 22일
- 사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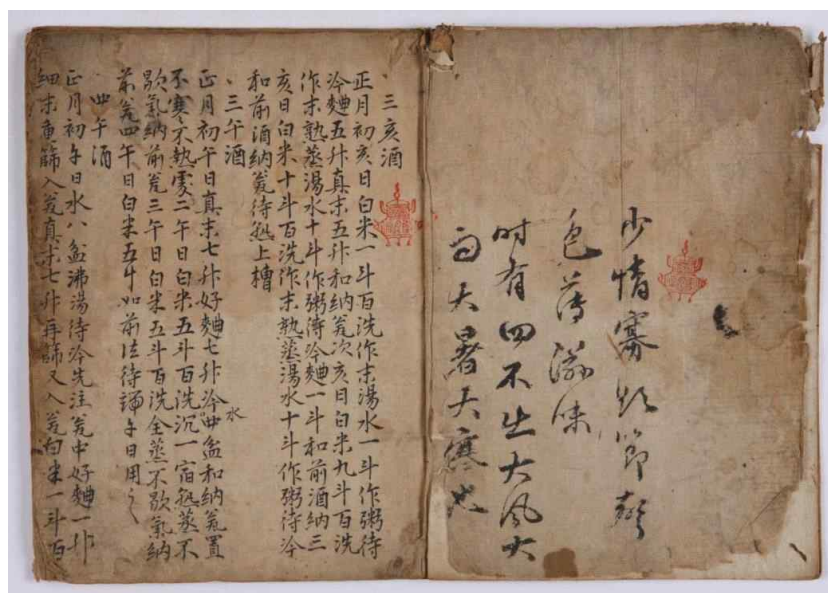
‘국새 대원수보’는 대한제국기인 1899년 6월 22일 육해군을 통솔하는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고, ‘대원수보(大元帥寶)’ 1과, ‘원수지보(元帥之寶)’ 1과, ‘원수부인(元帥府印)’ 1과를 만든 것 중 한 과이다. 대원수(大元帥)는 원수부의 수장으로, 국가의 전군(全軍)을 통솔하는 최고 계급을 지칭한다. 군인 임명서 등에 날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으며,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총무처에 인계하면서 환수되었고, 이 후 1954년 6월 28일 총무처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해 오늘날까지 보관되고 있다.

용모양의 손잡이인 용뉴(龍鈕)와 유대(鈕臺, 얇은 받침) 및 보신(寶身)으로 구성되었고, 서체는 소전(小篆)으로 단정하고 정갈하다. 뉴식(鈕式)에 있어 조선왕실의 보인은 거북이형인 귀뉴(龜鈕)였으나, ‘국새 대원수보’는 대한제국 보새의 형식을 따라 용모양 용뉴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뉴식의 아래 받침에 해당되는 뉴대(鈕臺)를 둔 것도 이 시기 국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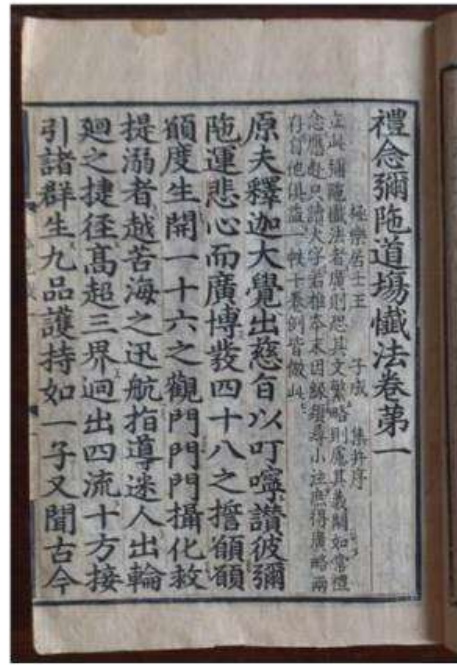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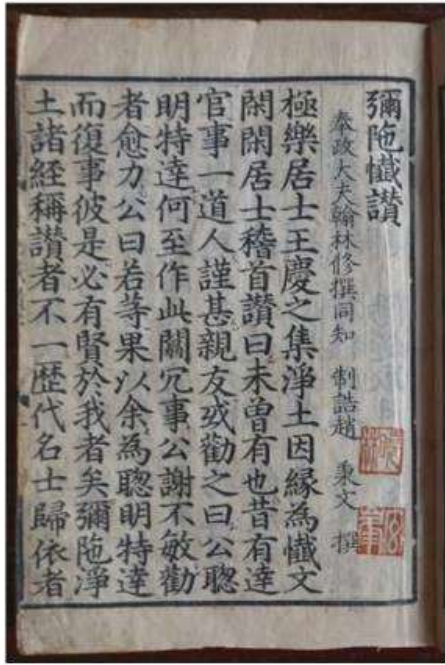
시간이 흘러 일부 변색되거나 탈색된 부분이 있지만 제작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온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용뉴(龍鈕)와 보면(寶面)의 문자 또한 결락(缺落) 없이 온전한 편이다.

‘국새 대원수보’는 용뉴의 받침인 뉴대를 갖춘 대한제국의 국새로서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고종황제가 군사적 실권을 갖고 강력한 군사력 강화를 통해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지정예고 사진】



<수운잡방>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국새 대군주보>



<국새 제고지보>



<국새 칙명지보>



<국새 대원수보>